

45. 제국로마의 등장에 대한 예언

2012. 11. 0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애청자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는데 애청자들에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애청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4,5]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1. 지난 시간에 알렉산더의 등장과 그의 죽음과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하신 5절에는 갑자기 남방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방의 왕은 누구입니까?

답: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사건들을 건너뛰면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그가 죽은 후에 네 사람의 장군에 의하여 네 나라로 갈라졌지요. 그들이 셀류쿠스,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되어 카산데르와 리시마쿠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셀류쿠스의 시리아와 프톨레미의 애굽이 남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 왕을 뜻하게 됩니다.

2. 왜 이렇게 건너뛰어서 남북왕조에 대하여 계시하셨을까요?

답: 예, 앞에 말한 역사적 사건은 남북왕조가 형성되는 경과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진짜 큰 전쟁은 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해하는 루시퍼의 세력과 어떻게 하든지 인류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미가엘 곧 그리스도의 권세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인데, 어떤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투쟁의 배후에도 영적 투쟁이 반영되겠지만 특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나라와 민족을 두고 영적 투쟁이 예리하게 대치하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계시는 이 영적 투쟁이 남북 왕들의 각축과 관련하여 극대화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마침내 그 남북 왕조가 어떻게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남북 관계로 이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네 왕 과 헬라의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과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는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전개되는 남북 왕들의 투쟁을 부각시키는 연결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8장에서

보여준 계시를 명료하게 그려주면서 11장에 보여준 예언이 8장의 예언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하고, 바로 그 작은 뿔이 역사에 등장하는 세밀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영적 투쟁의 실상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비록 역사적으로는 큰 사건들이라도 경과적(經過的) 사건으로 취급하고 남북 왕조의 각축이 영적 투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계시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해가 목사님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아들은 것입니까?

답: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부터는 남북 왕조 즉 남쪽 애굽과 북쪽 시리아의 대결인데요, 그것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예언된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강론에서 그것을 자세히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은 애청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기서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간의 패권 다툼을 기록했는데, 정략결혼 사건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져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성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그런 사건이 있을 후에, 그것을 아는 유대인이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세히 예언하실 수 있지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 중에 그들이 아는 역사책의 기록과 맞지 않으면 성경 기록을 마구 비판하지요. 이미 4장에서 본대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는 기록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던 학자들이, 왜냐하면 바벨론 역사책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비문이 발굴되고서야 입을 다물었지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예언하신 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 그러면 이 시간에는 11장 14절부터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단11:13,14절입니다.

[단11:13,14]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13절의 북방왕은 시리아의 왕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역사적 사건과 대조하여 연구하면 13절의 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됩니다. 그가 남방왕 프톨레미 4세 필로파터에게 패하여 돌아갔다가 보복을 위하여 대군을 준비하고 애굽을 공략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요, 14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 그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14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문맥상으로 보

명 그때는 13절에 북방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남방을 공략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그때가 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한 대로 영적 투쟁을 염두에 두면 14절은 이후에 진행될 사건의 성질을 미리 나타내면서 진행될 예언이 이중적 의미를 지닐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란 예언이 나라들 사이에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그것이 역사적 종말에 나타날 사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대하여 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이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고 예루살렘이 유린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오버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것처럼 다니엘 11:14절도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예언하면서 영적으로 남북 왕조의 투쟁을 오버랩했다는 말입니다. 16절에는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말씀은 8:9,10말씀과 대조하면 짝을 이루는 내용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봅시다. 단8:9,10입니다.

[단8:9~11]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음은 11:14~16을 읽어보지요.

[단11:14~16]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두 말씀을 비교하면 평행구절이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대조해볼까요?

11:14~16	8:9~11
강포한 자가(14절). 스스로 높아져서(14절). 이상을 이루려 함(14절). 그 앞에 설자 없이 임의로 행함(16절). 영화로운 땅에 설 것임(16절). 그 손에 멸망이 있음(16절).	하늘 군대에 미쳐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음(9절). 스스로 높아져서(11절)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음(11절).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함(12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질 것임(9절). 백성과 매일의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됨(12절).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이 8장의 이 예언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지요.

5. 말씀을 대조해보니 명백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8장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11장 14 이하의 해석을 8장의 해석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없겠네요.

답: 당연히 그렇지요. 만일 그렇게 하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오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언 기록의 진행을 보면 11:14에서 지금 말한 이런 사실을 암시하고 15절부터는 13절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처음에 기록된 “그때에”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이 예언의 이중성을 설명하면서 “그때”가 13절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14절 후반에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중이었지요. 그렇게 그때는 이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아납니까? 우리가 9장24절을 공부하면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 때 네 백성은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잖습니까?

답: 맞습니다. 그런데 11장14에서 네 백성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중적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강포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이상, 곧 예언의 내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넘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때”는 네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인데 민족적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훗날 그리스도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6. 그때가 역사적 연대로 언제쯤 됩니까?

답: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 그때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인데요, 아직은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1장 13절을 살피기 위하여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단11:15,16]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15,16절은 일차적으로 13절의 후속 사건을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피살되었고, 뒤를 이은 셀류쿠스 4세도 총리에게 피살됩니다. 그를 이어 세류쿠스 4세의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말썽 많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애굽을 침공하고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공격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은 가자와 시돈이라고 해석자들이 말합니다. 애굽군이 시리아군을 당하지 못하자 애굽의 노련한 장군 스코파스를 응원군으로 보냅니다. 그도 시리아군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코파스의 군대가 바로 택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15절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라고 끝내고 16절로 넘어가면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데, 15절 끝에 것이므로라는 표현은 16절과 접속사역할을 하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냥 마치는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로 끝나는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7. 문장이 그렇게 끝나는 것과 개역성경처럼 끝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당연히 있지요. 개역성경대로 하면 16절은 15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16절 내용은 15절의 연속 사건이 아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5절 문장을 원문대로 끝내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번역한 성경들은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역사적 사건이 영적 사건의 진행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등장합니다. 개역성경에는 16절을 “오직 와서 치는 자가”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5절을 “것이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개역하는 사람들이 15절과 16절을 잇기 위하여 오직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이지요. 16절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리고 대항(대적)하는 자가 와서 임의로 행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되면 16절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북방왕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데요, 북방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하러가서 알렉산드리아가 4마일 남은 지점까지 침공을 했을 때 애굽은 신흥 강국인 로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이 와서 시리아 군대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로마를 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68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해를 이 해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일로 시리아를 억제하고 애굽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8. 예, 그랬군요. 드디어 오늘 강론 제목대로 로마가 등장하는군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참 절묘한 성취입니다.

답: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예언의 참 목적을 가르쳐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언이 이렇게 역사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구주이심과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9. 그런데 16절에 보니,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건을 뜻합니까?

답: 그 말씀 앞에서 로마의 강함을 지적하는 말이 있지요.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적하는 자가 와서 마음대로 행하리니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장과 7장에 넷째 나라인 철 나라의 행패를 묘사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철 나라이고 7장에서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타냈는데, 그 이가 철이지요. 이것이 밟고 부수는데 아무도 당하지 못했지요. 이 사실을 문자적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로

마는 드디어 시리아를 제압하고 그 영토를 로마에 합병합니다.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8세를 몰아내고 시리아를 합병한 후 곧 유대를 침공하여 유대를 로마에 합병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섰고 로마의 손에서 유대는 망했지요. 물론 한참은 총독 통치를 했지만 기원 70년에는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후로는 북방왕의 자리를 로마가 차지합니다. 15절까지 북방왕이 시리아를 지칭한 것이라면 16절 이후부터는 로마가 북방왕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추이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다니엘 11장을 예언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른 이해를 하게 되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세상나라들의 각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진행되는지, 또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인간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권력 다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나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막으려는 노력이지요. 다니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계시해줍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세상의 장래를 미리 알게 되는 혜안을 얻을 것이며,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10.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예언을 잘 깨달으시고 디모데전서1:18,19에 있는 말씀대로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하늘까지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함께 잘 도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이 되었는데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애청자들께서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